2026 미래세대 문화교류 프로그램 안내

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다국적 청년들과 함께 문화예술로 소통하는「2026 미래세대 문화교류 프로그램」참가자를 모집합니다.

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국적 청년 세대가 한국 및 각 국가의 문화를 매개로 서로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, 문화 교류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Ⅰ 프로그램 개요

- **사업명**: 2026 미래세대 문화교류 프로그램
- **일시**: (1차) 2026. 11. 24.(화) 17:00~20:00 / (2차) 11. 27.(금) 13:00~16:00
- **장소**: (1차)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, (2차) 정동1928 아트센터 등
- **대상**: 국내에 체류하는 만 18~39세 다국적 청년 / 프로그램별 20인 내외

※ 한국인도 포함되며, 다양한 국적의 청년 모집

- 문화예술 활동 및 청년세대 간 교류에 관심이 있는 청년
- 한국어로 기본적 소통이 가능하며, 한국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나누고 싶은 청년

- **프로그램 내용**
  - (11.24/화) '한 글자' 주제로 나만의 종이 작품 제작 및 교류
  - (11.27/금) 예술가 전시 관람, 지역 탐방 및 마음 풍경 스케치

※ 프로그램별 개별 참석 또는 2개 모두 참석 가능

Ⅱ 신청방법

- **신청기간**: ~ 2026. 11. 18.(수) 까지

※ 모집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**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(구글폼 제출) [링크]**

※ 최종 참여자는 11월 셋째 주 중 선정하여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.

- **유의사항**
  - 선착순이 아닌, 작성된 참여 동기를 고려하여 최종 참여자를 선정합니다.
  - 프로그램은 한국어로 진행되며, 언어가 서툰 분들을 위해 영어 통역을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.
  - 전체 프로그램은 무료이며, 프로그램에 따라 간식·식사 등을 함께 제공합니다.

Ⅲ 문의처

- 교육진흥원 문화국제협력팀 사업 담당자: hmlee@arte.or.kr / 02-6209-5853
- 미래세대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사무국: kaces@arte.or.kr / 070-5142-0540

Ⅳ 주최/주관

- 주최: 문화체육관광부
- 주관: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

Ⅴ 참여 예술가

- **(주강사) 알렉스 김 | 시각예술가**



현대미술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, 매체미술과 교육철학을 연구했다. 다문화권에서 성장하였고, 주로 존재론 및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어떻게 예술적 수행과 매체가 우리 삶의 실존감을 유지하는지 탐구한다. 2024년부터 <일생 프로젝트: 심상 스케치>를 통해 인간 내면에 쌓여가는 기억과 감정의 잔상을 '구겨진 종이' 위에 일생이라는 시간 동안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.
(인스타그램 @alexkim.studio)

- **(협업강사) 문해주 | 설치예술가**



사람과 사물 주변에 함께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작업으로 풀어내는 설치예술가이다. 장애를 포함한 여러 차별적 경계들 사이,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고민 속에서 예술 작업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. 2019년부터 <의자 프로젝트>를 통해 버려지는 것들과 낡아가는 것, 개인과 집단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관계를 마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.
(인스타그램 @moonnine84)